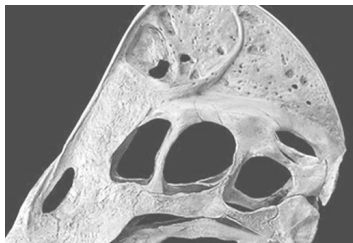


국가별 동향



미 국

신종 공룡 발견...닭 닮은 '지옥의 치킨'



미국 연구진이 새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공룡이 존재했음을 밝혀

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영국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유타대의 에마 새흐너 박사는 이 공룡이 크게 늘린 닭처럼 생겼다고 말했다. 이 화석을 발굴한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의 타일러 라이슨 박사도 닭과 도마뱀을 섞어놓은 것쯤 된다고 설명했다. 신종 공룡은 '싸움닭'을 연상시키는 별명처럼 무시무시한 특성도 지녔다. 머리끝부터 꼬리 끝까지 길이가 3m에 달하고 두 발로 섰을 때 높이는 1.5m 정도이며 몸무게는 300kg가량일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또 두 발은 달리기에 적합하게 쪽 뺀었고 앞발은 권투선수처럼 근육질이며 사지 끝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달렸다. [SBS]

일종의 인권(人權)과 같은 '계권(鷄權)'을 준다는 것.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8년 표결을 통해 비좁고 밀폐된 공장형 양계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딱 어미닭 크기만한 사육장에 닭을 가두고 강제로 항생제와 사료를 먹이는 방식의 공장형 양계를 금지한 조치다. 이 규정이 캘리포니아 양계장은 '닭의 세계'에서는 5성급 호텔로 불렸다. 하지만 당시 캘리포니아 양계업계의 반발은 거셌다.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주에서 생산된 닭과 계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주 정부는 규정을 대폭 강화해 다른 주에서 생산된 닭과 계란일지라도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유통시키려면 캘리포니아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되레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연방 차원에서 아직 입법화하지 않았다는게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미주리주 등 4개 주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양계 규정에 반대하는 소송을 낸 상태다.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양계업계 뿐 아니라 소, 돼지 축산업계로 반발이 번지고 있다. [헤럴드경제]



스위스

스위스서 계란 2만1천723개 세워...기네스 기록

스위스 보 칸톤(州)의 도시 샬로 데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에서 2만1천723개의 계란을 세우는데 성공, 종전의 기네스북 기록을 깼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닭이 되고 싶다”...무슨 사연?

5성급 호텔 같은 양계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 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도시는 1만3천626개의 계란을 세운 독일의 브레멘 인근에 있는 오스터홀츠-벡이라는 도시였다. 기네스북은 3~4주 후에 새 기록을 등재할 예정이라고 스위스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기록 경신에 사용된 계란은 인근 로잔의 항구도시 우시에서 운반됐다. 계란 세우기는 애초 외부 행사장에서 처음 시작됐으나 바람이 불어 실내 행사장으로 옮겨 진행됐으며 계란 세우기를 하는 동안 단 1개의 계란만 깨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나란히 세워진 계란의 총 연장은 1km에 달했다. 행사에 사용된 계란들은 주인들에게 돌려주거나 인근 병원이나 요양원에 기부됐다. 또한 약 6천 프랑(약 700여만원)의 행사 수익금도 어린이 암 가정 협회에 기증됐다. [연합뉴스]



영국

무려 90억! 세계 최고가 '부활절 계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계란의 실물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무려 다이아몬드 1,000개로 꾸며진 보석 계란 '미라지(Mirage)'의 자세한 모습을 소개했다. 미라지는 외형만으로 앞도적인 고급스러움을 드러낸다. 1,000개에 달하는 다이아가 촘촘히 박혀 은색 광채를 내고 있는 모습은 탄성을 자아낸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중간부분을 잡고 뒤로 젖히면 18캐럿 순금으로 도배된 내부가 나타

난다. 그 안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와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이 담겨있다. 예상했겠지만 미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복하는 '부활절 계란'인 것이다. 과거부터 계란은 봄, 풍요, 다산의 상징이었다. 곁은 조용하지만 언젠가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계란은 만물이 소생하는 지구와 비유되어왔고 이 미라지는 '부활 의미'가 극대화된 고급 예술작품인 것이다. 미라지의 가격은 500만 파운드로 한화로 환산하면 거의 90억 원에 달한다. 곁에 박혀있는 다이아 가격만 150만 파운드(약 26억)다. 이탈리아 고급 스포츠카 페라리 수십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계란은 보석 세공 전문가인 맨프레드 와일드가 3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 만들어낸 작품으로 소유자는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재력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우뉴스]



파키스탄

FTA로 양계산업 피해

파키스탄은 말레이시아(0%)와 중국(16%)과의 FTA체결로 가공된 닭고기제품의 수입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양계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양계협회 Raza Mehmood Khursand 북부지역장은 "인도 대상으로 수입관세가 25%, 그 외 국가는 100%의 수입관세로 산업을 보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FTA로 국내 양계산에 막대한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sian-agribiz] **양계**